

## 임부태아애착정도와 산후 모자동실의 선택

송 주 은\* · 이 미 경\* · 장 순 복\*\*

### I. 서 론

#### 1.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적 신념하에서의 산후의 모자 관리방식은 한 방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기거하게 하는 것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타인과 분리시키기 위해 금(禁)줄을 사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였다. 이러한 산후 모자관리 체계는 모아의 휴식과 안정을 도모하고 모아상호작용의 강화를 통해 아기 돌보는 기술과 모유수유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과거의 이러한 전통적인 모자관리체계가 가능했던 것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가정분만을 하였기 때문이었으나 1978년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이후 병원분만이 보편화됨에 따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는 병원의 운영체제와 의료인의 편익에 의해 분리되어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만 후 모자별실제를 통한 모아의 관리는 병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모아접촉 및 양육행동 경험 등의 모아상호작용을 통한 어머니 역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산육초기 산모와 가족의 새로운 역할획득이라는 간호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하였다.

모아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모성 간호가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별실제의 보편화는 모아를 동시적, 동일상황적 공동체가 아닌 별개의 존

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모아를 연결시키는 노력은 수유시나 면회시간에만 국한되게 되었다. 이러한 모아의 분리는 바람직한 모아관계의 기본이 되는 모아애착 형성의 민감기를 박탈함으로써 애착형성 방해를 비롯하여 어머니 역할로의 이행과 수행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반면에, 모자동실은 분만 직후부터 퇴원할 때까지 영아를 산모 곁에 있게 하여 항상 산모와 신생아가 접촉하면서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중심적 간호를 할 수 있으며, 모아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획득하도록 하는 산육초기의 간호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후 모아의 조기접촉은 모아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며(Park, 1991) 모유수유 실천을 증가시키고(Song, 2001; Hwang, 1997) 모아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가시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인에 의한 신생아들의 교차감염의 기회를 줄여 설사, 호흡기 문제 및 피부 문제가 감소되고(Gonzales, 1990) 분만 후 모아가 분리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됨으로써 격리에 의한 산모의 정서적 장애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Anderson, 1989). 또한 모자동실 산모는 신생아가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투고일 2002년 1월 28일 심사위원회 2002년 4월 22일 심사완료일 2002년 7월 24일

갖게 된다(Kraus, Kennell, Plumb & Zuehlke, 1970). 그러므로 조기태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부인과 병동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초기 모아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모아동실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부터 실시되는 우리나라 제 3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평가기준에 따르면 모유수유 권장 및 모아동실 실시여부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어 모아동실제도의 실시는 시대적, 사회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아동실제도의 필요성과 이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동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절충식 모아동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신체적 불편감, 산후피로, 수면 방해, 아기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부족 등을 이유로 산모들은 모아동실 보다는 모아별실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Park, 1991). Ann과 Lee(1998)는 모아동실제도에 대한 간호사, 의사, 산모간의 인식도 비교연구에서 의료인 및 산모 모두가 모아동실제도의 의미를 알고 있으나, 모아동실제도 실시에 대해 간호사는 모두 찬성한다고 한 반면 의사 및 산모는 2/3만이 찬성한다고 보고하여 대부분의 산모들은 모아동실에 대해 알고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따라서 어떤 선행요인이 모아동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모아동실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경향을 보면 주로 모성정체감 획득,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만족감, 모유수유 실시율과 지속율, 아기 울음의 의미 파악 등의 실제적인 신생아 돌보기 활동, 정서적 안정감, 불안 및 산후 우울과 관련하여 모아동실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 모아동실을 유도해야 하는 정당성이 대두되고 있으나(Kim, 2000; Ann & Lee, 1998; Park, 1991; Yamauchi & Yamanouchi, 1991),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산모들이 모아동실을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모아동실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신·심리요인 중의 하나인 임부태아애착이 모아동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모아 애착은 산후에 최초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신 기간 동안 형성된 애착을 기초로 하여 연속선상에서 발달되므로 임신기의 임부태아애착이 분만 직후 머무르게 될 병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임신시의 정신·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임부태아애착이 모아동실 선택의 선행요인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모아동실이 바람직한 모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모아동실과 모아별실을 경험하는 질식분만 산모들의 임부태아애착정도를 분석하여 모아동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문제 및 목적

본 연구의 문제는 “질식분만 산모의 임부태아애착정도에 따라 모아동실 선택이 차이가 있는가?”이다. 연구의 목적은 질식분만 산모의 임부태아애착정도에 따른 모아동실과 모아별실 선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 3. 용어정의

### 1) 모아 동실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한 간단한 처치와 검사가 끝난 다음부터 병원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동안 엄마와 신생아를 한방에 머물게 하는 가족중심적 대상자 관리체제로서(Reeder, Martin, & Koniak-griffin, 1997),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간단한 처치와 검사가 끝난 직후부터 엄마와 아기가 한방에 머물면서 수유, 기저귀 갈기 등의 아기 돌보기 활동이 산모 방에서 산모 자신이나 산후 조력자(부모, 남편 등)에 의해 하도록 격려되는 가족 중심적 대상자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 2) 모아 별실

출산 후 신생아와 산모를 각각 다른 장소에 머물게 하는 대상자 관리체제로서(Reeder, Martin, & Koniak-griffin, 1997),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산모는 산모병실에서, 신생아는 신생아실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수용하고, 산모가 필요시 신생아실을 방문하여 모유수유 또는 면회를 하도록 하는 대상자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 3) 임부태아애착

임신한 여성이 태아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서적 결속의 표현으로서(Cranley, 1981), 본 연구에서는 Cranley(1981)가 개발한 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 (MFAS)을 Kim(200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의 합을 말하며, 최저 24점에서 최고 96점까지의 범위로 측정되도록 되어있어서 점수가 높을

수록 임부태아에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질식분만 산모의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임부태아 애착점수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후향적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 2. 연구대상

#### 1) 표본수 결정

본 연구에서 최소한의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moderate effect size = .50, power = .80, 유의수준  $\alpha$  = .05를 기준으로 t-test를 적용하기 위한 power analysis를(Cohen, 1988) 시행한 결과, 한 군당 최소 6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4명 이상이면서 기간내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모자동실군 68명과 모자별실군 98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자동실과 모자별실을 동시에 운영중인 서울에 소재 S병원에서 출산한 후 입원중인 산모로서, 모자동실을 선택하여 모자센터에 입원중인 산모(모자동실군)와, 모자별실을 선택하여 일반병실에 입원중인 산모(모자별실군) 전수 중에서 다음의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산모 각 68명과 98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산모들의 경우, 분만을 위해 분만실에 입원할 당시에 간호사로부터 모자동실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설명을 제공받은 후 본인의 뜻에 따라 모자동실 여부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임신 주 수 36주 이상으로 정상질식분만을 한 자
- (2) 임신과 분만, 산욕기간 중 임부에겐 건강문제가 없는 자
- (3) 2000gm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자
- (4)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 (5)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일반적, 산과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적 특성 질문지(14문항)”와 임신동안 임부태아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임부태아 애착 측정도구(24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부태아애착 측정 도구는 자신과 태아의 구별(3문항), 태아와의 상호작용(5개 문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6개 문항), 자기제공(6개 문항), 역할취득(4문항)의 5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저 24점부터 최고 96점까지의 가능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부태아에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5였고(Cranley, 1981), Kim(2000)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계수 Chronbach's  $\alpha$  = .87-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 Chronbach's  $\alpha$  = .92로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현재 모자동실과 모자별실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운영중인 서울 소재 S병원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간호부에 공문을 띄워 연구의 목적의 의의를 설명했으며, 대상자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되었다. 2001년 4월초에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 각 5명을 대상으로 도구의 읽기 용이성과 문장의 이해도 파악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 조사결과에 따라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49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모자동실을 하고 있는 질식분만 산모의 임부태아애착 측정을 위해서 분만 후 2일째 오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도구에 대해 교육을 받은 1인의 연구원이 직접 산모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의 동의를 받은 후 산모자신이 직접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모자별실을 하고 있는 질식분만 산모의 임부태아애착 측정도 연구참여에의 동의를 받은 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소요된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을 출산 후 2일째 오전에 한 이유는 이때가 질식분만 산모의 퇴원 시점으로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중 비교적 피로도가 낮아 설문응답에 성의껏 임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산후에 과거 임신시의 임부태아애착 정도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이유는 산전진찰을 받는 병원과 출산병원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탈락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 동실 또는 별실을 선택한 산후 시점에서 임부태아 애착정도를 후향적으로 측정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와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chi^2$ -test와 t-test로 동질성 검증을 하였다.
- 2) 모자동실군 산모와 모자 별실군 산모의 전체 임부태아애착과 영역별 임부태아애착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test로 두 군간의 임부태아애착 차이를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와 신생아의 특성 분포와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66명으로 모자동실군이 68명, 모자별실군이 98명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의 분포와 동질성 검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자동실군 산모의 평균 연령은 29.5(±3.1)세였고, 평균 임신횟수는 2.0(±1.2)회였으며 초산이 43명(63.2%)이었고, 대학 졸업이상이 50명(73.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상태를 보면, 전업주부가 38명(55.9%)이었고 직장이 있는 산모는 30명(44.1%)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24명(35.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모자별실군 산모의 평균 연령은 29.9(±3.1)세였고, 평균 임신횟수는 2.0(±1.1)회였으며 초산이 59명(60.2%)이었고, 학력은 대학 졸업이상이 65명(66.3%)이 많았다. 직업상태를 보면, 전업주부가 36명(36.7%)이며 62명(63.3%)이 직업을 있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101-

200만원 이하가 41명(41.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두 군간의 동질성 여부를 보면 교육경도와 경제수준은 모자동실군이 높고 전업주부의 비율은 모자별실군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임신관련 특성을 보면 모자동실군 산모의 경우 48명(70.6%)이 계획된 임신을 했으나, 단지 19명(27.9%)만이 산전 임부교실에 참여했으며, 53명(77.9%)이 태교를 실시하였다. 모자별실군 산모의 경우는 64명(65.3%)이 계획된 임신이었으며 15명(15.3%)만이 산전교실에 참여하였고 67명(68.4%)이 태교를 하였다. 두 군을 비교했을 때 모자동실군이 산전교육 참여율이 높아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chi^2=3.935$ ,  $p=0.047$ ) 임신계획여부와 태교실시율은 모자동실군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두 집단 산모의 분만관련 특성의 분포와 동질성 검증 결과를 보면 모자동실군 산모의 평균 분만소요시간은 5.35(±3.69)시간인 반면 모자별실군은 5.93(±5.41)시간이었으며, 분만과정동안 모자동실군은 32명(47.1%)의 남편이 참여하였고 모자별실군은 24명(24.5%)의 경우에서 분만과정동안 남편이 참여하였다. 분만과정 중 남편의 참여정도가 모자동실군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9.147$ ,  $p=0.002$ ).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신생아 특성을 보면 모자동실군 산모의 신생아 중 남아는 33명(48.5%)이었고, 9명(13.2%)의 신생아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생아의 출생시 평균 체중은 3.29(±0.37)kg이었다. 모자별실군 산모의 신생아 중 남아는 49명(50.0%)이었고, 17명(17.3%)의 신생아에게 건강문제가 있었으며, 출생시 평균체중은 3.31(±0.41)kg이었다. 두 군간의 동질성 여부를 봤을 때 모자동실군에서 여아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모자별실군에서는 신생아에게 건강문제가 있는 비율과 신생아 출생시 체중이 약간 더 많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2.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의 임부태아애착 차이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가 지각한 임부태아애착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전체 임부태아 애착 점수는 가능점수의 범위 24점 - 96점 중에서 모자동실군이 75.12(±12.20)점이고 모자별실군이 71.10(±

<Table 1> Homogeneity test of rooming in and non rooming in groups (N=166)

Variable	Rooming in (n 68)		Non Rooming in (n 98)		x <sup>2</sup> or t	p	
	n(%)	Mean±SD	n(%)	Mean±SD			
Age	22 - 42	29.5±3.1		29.9±3.1	-0.713	0.477	
Gravidity	1 - 7	2.0±1.2		2.0±1.1	-0.110	0.913	
Para	primipara	43(63.2)		59(60.2)	0.156	0.693	
	multiapra	25(36.8)		39(39.8)			
Education	high school	18(26.5)		33(33.7)	2.201	0.333	
	>university	50(73.5)		65(66.3)			
Occupation	No	38(55.9)		62(63.3)	2.354	0.502	
	yes	30(44.1)		36(36.7)			
Income (won /month)	<1,000,000	3(4.4)		1(1.0)	5.516	0.138	
	1,010,000 ~ 2,000,000	18(26.5)		41(41.8)			
	2,010,000 ~ 3,000,000	23(33.8)		27(27.6)			
	>3,010,000	24(35.3)		29(29.6)			
Plan of pregnancy	yes	48(70.6)		64(65.3)	0.510	0.475	
	no	20(29.4)		34(34.7)			
prenatal class	yes	19(27.9)		15(15.3)	3.935	0.047**	
	no	49(72.1)		83(84.7)			
Taekyo	yes	53(77.9)		67(68.4)	1.837	0.175	
	no	15(22.1)		31(31.6)			
Labor duration	1 - 43 hour		5.35±3.69		5.93±5.41	-0.772	0.441
Husbands presence	yes	32(47.1)		24(24.5)	9.147	0.002**	
	no	36(52.9)		74(75.5)			
Newborn sex	male	33(48.5)		49(50.0)	0.035	0.852	
	female	35(51.5)		49(50.0)			
Problem	yes	9(13.2)		17(17.3)	0.514	0.474	
	no	59(86.8)		81(82.7)			
Birth weight	2.2 - 4.4gm		3.29±0.37		3.31±0.41	-0.380	0.705

\*p<0.05

11.77)점으로서 모자동실군의 임부태아에착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130, p=0.035).

두 집단의 산모가 지각한 하루 영역별 임부태아에착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 영역의 임부태아에착점수는 모자동실군이 20.37(±3.11)점, 모자별실군이 18.96(±3.65)점이었고, 역할 취득 영역은 모자동실군이 12.31(±2.93)점, 모자별실군이 11.36(±2.81)점으로 두 영역 모두 모자동실군이 모자별실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부태아에착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96, p=0.010 ; t=-2.109, p=0.036).

다음으로, 자신과 태아의 구별 영역은 모자동실군이 9.21(±1.72)점, 모자별실군은 8.90(±1.73)점이고

(t=-1.133, p=0.259), 태아와의 상호작용 영역은 모자동실군이 15.78(±3.06)점, 모자별실군이 15.25(±2.61)점이었으며(t=-1.209, p=0.228), 자기제공 영역은 모자동실군이 17.46(±3.80)점, 모자별실군이 16.64(±3.84)점으로 나타나서(t=-1.348, p=0.179) 세 영역 모두 모자동실군이 모자별실군에 비해 임부태아에착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 IV. 논 의

##### 1. 모자동실

<Table 2> Comparison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score between the rooming in and non rooming in groups

Subscales	Rooming in (n 68)	Non Rooming in (n 98)	t	p
	Mean±SD	Mean±SD		
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9.21± 1.72	8.90± 1.73	-1.133	.259
Interaction with the fetus	15.78± 3.06	15.25± 2.61	-1.209	.228
Attributing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the fetus	20.37± 3.11	18.96± 3.65	-2.596	.010*
Giving of self	17.46± 3.80	16.64± 3.84	-1.348	.179
Role taking	12.31± 2.93	11.36± 2.81	-2.109	.036*
Total score	75.12±12.20	71.10±11.77	-2.130	.035*

\*p<0.05

본 연구에서 임부태아에착이 높은 군이 모자동실 선택비율이 높은 것으로 검정됨으로서 임부태아에착이 모자동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모자동실은 단지 모아가 같은 공간에서 돌보아 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모아관리 체제로서, 만약 애착형성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 출산 후 24시간 내에 산모와 아기와 분리되면 건강한 산모는 자신이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하게 되고, 아기의 반응에 대해 익숙해지지 못하므로 퇴원 후 아기 돌보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며,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저하되는 반면 (Cooper & Murray, 1998), 모자동실제는 부모에게는 신생아 돌보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호사에게는 모아를 한 단위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모아의 적응도와 발달상태, 상호요구에 따라 간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유, 아기간호, 산욕기 간호 등에 대해 각각의 모아에게 맞는 개별적 교육, 강화, 조언을 하게 되므로 산후 어머니로서의 역할 획득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Reeder, Martin & Koniak-griffin, 1997), 그 외에도 모성정체감 획득,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만족감, 모유수유 실시와 지속, 모아 애착 행위정도, 부아 애착 행위정도, 아기 울음의 의미 파악 등의 실제적인 신생아 돌보기 활동, 정서적 안정감, 불안 및 산후 우울 등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권장할 만한 모아관리 체제이다.

본 연구에서 모자동실을 선택한 산모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교육

정도과 경제수준이 모자별실군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Song(2001), Kim(2000), Ann과 Lee(1998)와 Hwang(1997)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모자동실을 선택했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한편, Park(1991)의 연구에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일수록 모자별실을 선택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대적, 의료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부교실이나 모자동실의 장점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10여년 전에 수행된 Park(1991)의 연구에서는 고학력이고 전업주부인 경우 오히려 모자별실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로 인해 신생아돌보기 자신감이 낮음을 호소함으로써 신생아돌보기 자신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가 모자동실 여부라고 보고하였으나, 산전에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임부교실 등이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어머니의 지적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산전교육 참여율이 높고 바람직한 모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자동실 선택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모자동실을 선택한 군은 산전교육 참여율이 높고 계획된 임신이었으며 태교실시율이 높았는데, 산모의 모자동실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Ann과 Lee (1998)의 연구에서 모자동실 제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산모가 모자동실제도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모자동실군이 산전 임부교실 참여도가 유의하게 높음은 산전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태교실시율이 높았으며 그로 인해 임부태아간에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분만 후 모자동실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자동실을 선택한 경우에는 분만과정 동안 남편이

참여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아버지도 함께 출산에 참여하여 출산 초기부터 양육과정에 동참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모자동실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는 Ann과 Lee(1998)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자동실의 선택에는 모성의 의지뿐만 아니라 부성의 지지도 커다란 영향요소임을 알 수 있다.

## 2. 임부태아애착

임부태아애착은 임신기간에 임부가 태아에 대하여 갖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표현되는 행위로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임신 전 기간을 통해 발달하는 복잡하고도 지속적인 과정인데 임신기간동안의 임부태아애착이 산후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산전 임부태아애착이 높을수록 산후 모아애착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Muller, 1996; Cranley, 1981). 임부와 태아 사이에는 많은 상호작용이 있으며 임신 기간에는 태아의 신체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 확인, 태아에 대한 정서적 감 형성, 임부와 태아간의 관계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Cranley, 1981) 태아에 대한 임부의 애착은 임신 기간 동안의 발달과업 성취와 성공적인 모아관계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다.

Wilson 등(2000)은 156명의 임부와 62명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역동과 태아애착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태아와의 애착관계 정도와 부부간의 적응도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Lindgren(1997)은 임부태아애착의 강도가 임부의 긍정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서 태아가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인간적 존재로서 보호되고 상호관계가 증진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서적 요소라고 하였고, Muller와 Ferketich(1993)는 336명의 저 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본인이 개발한 산전 애착 도구(Prenatal Attachment Inventory)로 임부 태아의 애착을 측정 한 결과, 임부태아애착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임신 적응이 더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자동실 산모의 전체 임부태아애착점수는 75.12(±12.20)점, 모자별실군 산모의 임부태아 애착점수는 71.10(±11.77)점으로 나타나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전체 임부태아애착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30$ ,  $p=0.035$ ).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분만을 위해 입원시 모자동실을 선택하

었는데, 임부태아애착이 강할수록 모자동실 선택율이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임부태아 애착의 긍정적인 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애착은 임신 동안에 시작되고 출산 초기에 강화되며 아이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본질적이므로 간호사는 산육기 초에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어머니로서의 과업 뿐 아니라 가족의 발달기적 과업을 돕기 위해 임부태아애착 증진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육기 초의 모아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아가 함께 기거하는 모자동실이 이루어져야하며 모자동실 선택 분포를 높이려면 임신 중 임부태아애착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모자동실군과 하루영역별 임부태아 애착과의 관계를 보면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영역( $t=-2.596$ ,  $p=.010$ )과 역할취득 영역( $t=-2.109$ ,  $p=.036$ )이 모자동실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임신 2기와 3기를 대상으로 한 Ahn(1993)의 연구에서는 자기제공과 역할취득영역이 애착점수가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임신 1, 2, 3기의 임부를 대상으로 한 Kim(1991)의 연구에서는 역할취득행위를 하는 임부는 81.2%, 자기제공행위는 78.4%의 애착을 보였고 자신과 태아를 구별하는 행위는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애착영역이 다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Ahn(1993)과 Kim(1991)의 연구대상자는 임신상태로서 태아를 위해 자신이 노력하거나(자기제공) 모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 획득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함(역할취득)으로 인해 높은 애착점수가 보고된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는 출산 후 2일째에 임신시의 임부태아애착을 회상하도록 하여 측정하게 됨으로서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모두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영역과 역할취득영역이 다른 선행연구에 비해 애착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특히 이러한 결과는 모자동실군이 분만 후 신생아 돌보기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영역과 모성으로서의 역할취득영역이 모자별실군 보다 높은 점수가 보고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전체 애착 총점이 모자동실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것은 임신시의 임부태아애착이 높을수록 모자동실을 선호함을 보여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동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분만전의 산전간호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로서 임부태아애착 강화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

각된다. 지금까지는 모자동실이 바람직한 모아관리 측면에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모자동실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임부태아에착을 강화시키는 등의 간호중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임부태아에착이 높을수록 모자동실 선택율이 높았다는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산전에 임부태아 에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분만 후에 모자동실 선택을 활성화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임부교실 참여분포가 모자동실군에서 높았으므로 임부교실참여와 임부태아에착을 추가 분석한 결과, 임부교실에 참여한 군이 참여하지 않은 군보다 임부태아에착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t = -2.071, p=0.043$ ) 또한 임부교실에 참여한 군의 모자동실 정도가 참여하지 않은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X^2=3.935, p=0.047$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임신중 산전교실의 참여 여부가 임부태아에착정도에 기여하고 모자동실 결정을 유도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병원정책의 부재와 산모들의 기피로 모자동실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임부태아에착 정도, 산전교실 참여 여부, 남편의 분만참여 여부에 따라 모자동실을 선택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산전교실을 통해 임부태아에착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자동실이 바람직한 모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 모자동실 여부에 따라 산모의 임부태아에착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임부태아에착이 모자동실 선택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규명하기 위한 후향적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자동실과 모자별실을 동시에 운영중인 서울에 소재한 S병원에서 출산을 한 후 입원중인 산모 중에서, 모자동실군 68명과, 모자별실군 98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가보고법에 의해 자료수집 되었다.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질문지(14문항)”와 임신동안 임부태아 에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임부태아 에착 도구(24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Window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두 그룹간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서술통계 후,  $\chi^2$ -test와 t-test를 하였고 임부태아에착의 차이검정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와 신생아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임신관련 특성 중 임부교실참여율( $\chi^2=3.935, p=0.047$ )과 분만관련 특성 중 분만 동안 남편의 참여율( $\chi^2=9.147, p=0.002$ )이 모자동실군에서 모자별실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
2.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간의 전체 임부태아에착 총점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모자동실군이 75.12( $\pm 12.20$ )점이고 모자별실군이 71.10( $\pm 11.77$ )점으로서 모자동실군의 임부태아에착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2.130, p=0.035$ ).
3. 두 집단의 산모가 지각한 하루 영역별 임부태아에착의 점수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영역( $t=-2.596, p=0.010$ )과 역할취득영역( $t=-2.109, p=0.036$ )은 모자동실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과 태아의 구별영역, 태아와의 상호작용영역과 자기제공은 모자동실군이 모자별실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1.133, p=0.259$  :  $t=-1.209, p=0.228$  :  $t=-1.348, p=0.179$ ).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모자동실 결정 여부는 임신중의 임부태아에착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부태아에착은 임신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평생의 모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간호사는 애착형성을 도모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자동실은 애착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병원운영체제이며, 임신동안 형성된 임부태아에착이 높은 경우 모자동실의 선택비율이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모자동실제도의 활성화와 산모들의 모자동실 기피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임부태아에착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모자동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서울소재 한 병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대다수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임부태아에착에 관한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산후 2일 채로서 임부태아에착정도를 임신중을 회상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부태아에착정도가 모자동실군에서 모자별실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모자동실이라는 환경자체가 임부태아에착을 높게 인지하도록 하는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산을 하기 직전 임신상태에서 측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반복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모자동실 선택의 제반영향요인을 분석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모자동실 선택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4. 본 연구의 결과, 모자동실군에서 산전임부교실 참여율이 높았고 임부태아에착정도가 높았다. 이는 산전교육을 통해 임부태아에착을 증진시킨 효과뿐 아니라 바람직한 모아관리체제인 모자동실에 대한 지식정도를 향상시킬수도 있었음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자동실의 잇점에 대한 지식정도를 통제변수로 한 후 추후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hn, S. H. (1993). An exploration of the maternal & paternal-fetal attachment. *The Korean J. of Maternal Child Health Nursing*, 3(1), 49-63.
- Anderson, G. C. (1989). Risk in Mother - Infant Separation Postbirth. *IMAGE : J. of Nursing Scholarship*, 21(4), 196-199.
- Ann, Y. M. and Lee, Y. E. (1998).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rooming-in system among nurses, physicians and mothers. *J. of the Korean Society and Child Health*, 2(2), July, 239-261.
- Bowlby, J. (1981). *Attachment ; attachment and Loss*. London: Penguin book.
- Cooper, P. J., & Murray, L. (1998). Postnatal depression. *BMJ*, 316, 1884-1886.
- Cranley, M. S. (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0(5), 281-284.
- Gonzales, R. B. (1990). A large scale rooming in program in a developing country : The Dr. Jose Fabella Memorial Hospital experience. *Int. J. Gynecol. Obstet.*, 31(1), 31-34.
- Hwang, M. S. (1997). *The effect of rooming-in on maternal role and breast feeding*.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E. S. (2000). *The effect of rooming-in on maternal attitude and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O. (1991). *Maternal-fetal attachment behaviors during pregnancy*.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Klaus, M. & Kennel, J.(1982). *Parent-infant bonding*. St. Louis: the C. V. Mosby.
- Kraus, M. H., Kennell, J. H., Plumd, N., & Zuehike, S. (1970). Human Maternal Behavior at the First Contact with Her Young. *Pediatrics*, 46(2), 187-192.
- Lindgren, K. J. (1997).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fetal attachment, prenatal depression, and health practices in pregnancy*.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Ph.D.
- Muller, M. E. (1996). Prenatal and postnatal attachment : A modest correlation. *JOGNN*, 25(2), Feb, 161-166.
- Muller, M. E., & Ferketich, S. (1993). Factor analysis of the maternal fetal attachment scale. *Nursing Research*, 42(3), 144-147.
- Park, M. S. (1991). *A comparative study on primiparas' self-confidence of taking care of neonates between rooming-in and conventional group*.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Reeder, S. J., Martin, L. L., & Koniak-griffin, D. (1997). *Maternity Nursing (18th)*. New York : Lippincort.
- Song, J. E.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vel of postpartum women's fatigue between rooming-in and non rooming-in*

group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Yamauchi, Y., & Yamanouchi, I.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Rooming-in/not Rooming-in and Breastfeeding variables. *Acta Paediatrica Scandinavica*, 79(11), 1017-1022.

Wilson, M. E., White, M. A., Cobb, B., Curry, R., Greene, D. and Popovich, D. (2000). Family dynamics, parental-fetal attachment and infant temperament. *J. of Advanced Nursing*, 31(1), 204-210.

- Abstract -

### Differences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between the Rooming-in and Non-rooming in Groups of Postpartum Women

Song, Ju-Eun\* · Lee, Mi-kyeong\*  
Chang, Soon-Bo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the maternal-fetal attachment is related to choose the rooming-in of postpartum women.

**Method:** This is a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1 to

May 31, 2001. Subjects who had NSVD were 68 mothers who opted the rooming-in and 98 mothers who did not choose the rooming-in at one hospital in Seoul, Korea. The research questionnaire consisted of 14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24 items on maternal fetal attachment developed by Cranley(1981).

**Result:** 1. There was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rooming-in and non rooming-in groups in prenatal class attendance, and husband attendance during the delivery. 2. There was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score in the rooming-in group. 3. There was higher level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score in the group which had participated in childbirth education than the group which didn't had participated.

**Conclus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maternal fetal attachment i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factor choosing the rooming in for postpartum women.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maternal fetal attachment of pregnant women before making decision for whether they choose the rooming-in or non-rooming in after delivery.

**Key words :** Rooming-in, Maternal fetal attachment

---

\* Doctoral candida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Faculty,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